

- 산림청 임업연구원 버섯재배연구실에서는 최근 다년간에 걸쳐 표고신 품종 육성시험을 실시하여 우량 중균으로 원목재배용 산림8호를 개발, 신규 품종등록을 신청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 산림8호는 원목재배용 품종으로서 생표고 및 건표고용에 적합하고 맛이 대엽·중육인데 비해 신품종 산림8호의 맛은 중엽·후육으로 충실하다.
- 산림8호는 1세대 버섯수확량이 골목 1m²당 약 119.7kg으로 기존 품종의 106.4kg보다 13%가 증수되며, 생산성이 우수하고 품질도 양호하다. 버섯 발생기간은 3월~7월, 9월~12월으로 상당히 길며, 9월에 집중 발생된다.(기존품종은 4월~6월, 9월~10월 발생)
- 산림8호는 등록내정 공고기간인 2개월이 지난 7월 중순쯤 정식 등록되며, 등록이 되면 본 품종의 원균을 허가된 표고중균 배양소에 분양하여 중균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는 년중 장기간 버섯 발생을 원하고 9월에 많이 수확하고자 하는 재배자에게 표고 신품종 산림8호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DNA를 이용한 품종식별 기술개발

임목육종연구소(소장 박홍낙)는 DNA를 이용한 품종식별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1. 주요 연구결과

- 지금까지의 품종식별법은 잎, 모양, 꽃, 색깔등 외부형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자라는 곳의 환경차 품종간 특성차이의 모호 등으로 구분이 곤란하여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동정, 신품종 관리, 법적보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 DNA 지문(fingerprinting) 분석 기법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DNA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현성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아 품종식별에 적합함. DNA 지문분석법 중의 하나인 다중효소사슬 DNA증폭법(I-SSR PCR)을 이용하여 나라꽃인 무궁화의 품종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유연관계를 밝혀 무궁화의 품종관리 및 육종에 이용하고 신품종 등록 및 등록품종의 법적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단순반복 염기사이의 DNA를 증폭

할 수 있는 시발체(Primer) 10개를 이용하여 품종별로 일조직으로부터 추출된 DNA를 증폭시킨후 전기영동하여 얻어진 DNA 밴들해독, 분석할 결과 사용하였던 84개 품종 모두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 품종식별 즉 DNA 지문분석이 가능하였으며, 형태적으로 유사한 종의 구분 및 유연관계 등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꽃색깔과 품종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

였다.

2. 활용방안

- 이상의 결과는 무궁화 품종관리, 신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유실수 품종의 식별과 더불어 신 품종 등록,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품종 보호 및 개체확인, 교배검정, 잡종감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소나무에이즈 “재선충”확산 차단

산림청은 최근 국제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목재, 포장재 등에 묻어 '97년도에 지리산 화염사 주변과 경남 함안 구마고속도로 주변소나무에 재선충이 발생된데 이어 이번에 경남 진주 경상대학 뒷산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에 대하여는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 위치에서 저지하고 식물검역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목재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산둥성 일대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산림해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88년

10월 부산 금정산 소나무에 처음 발생한 이후 1997년도부터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부산 금정산지역은 그간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그러나 '97년 6월 전남 구례 화염사 금정암 보수공사장 주변과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마고속도로변 산림에서 발생된데 이어 지난 '98년 4월 22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 뒷산 5ha면적의 소나무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로서 “재선충”에 의한 피해는 '97년까지 763ha(부산 80ha, 전남